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성서적 비평

A Christian Critique of Capitalism

조 성 표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economic principles in the Bible. The God's created order and economic ethics give us many biblical suggestions about the man's dominion over nature, the nature of the work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terms of these biblical teachings, capitalism is an unsatisfactory system. 'private property', 'labour as the means of living' and 'the freedom to dispose his income', which are the main features of capitalism, are inconsistent to the biblical teachings.

I. 머리말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체제이다. 자본주의체제는 사회주의체제와 함께 오늘날 세계경제체제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자본주의체제는 공산 사회주의자들의 공격, 대공황등 여러 시련을 거치면서 일부의 수정이 있었지만 계속 성숙되어 왔다. 각종 규제법령의 제정, 정부의 개입등 자본주의체제의 수정이 있을 때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공격하며, 자본주의는 곧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체제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으

며, 오히려 부의 생산에 있어서는 그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배에서의 문제점등 자본주의 체제의 취약성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체제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자본주의체제에 몰입된 나머지 그 한계점을 간파하기가 쉽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체제에 관한 사항은 성서에서 직접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말씀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성서에서의 경제원리를 고찰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비판하여 봄으로써 성서적인 이상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도 자본주의체제 이상으로 비판의 여지가 많으나 우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를 조명하여 보기로 하고 사회주의 체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II. 창조질서와 경제윤리

1. 창조와 인간의 자연에 대한 통치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연을 돌보며, 이를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치권(dominion)을 부여하셨다 (창 1:26-30). 이러한 통치권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유지되었으며 (창 8:22),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6:25-32)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창조질서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거나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 창조질서는 인간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경제생활은 이로써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성서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특정한 범위의 자연에 대한 통치권은 특정한 집단 또는 특정인에게 부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은 많은 부와 재산을 소유하였다. 그런데 이 통치권은 현대에 통용되

는 '사유재산권'과는 다른 점이 있다. 누가복음 19:11-27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자원이 각개인에게 청지기(수탁자)로서 부여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즉 각 종들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노력에 대하여 회계한 다음, 그 임무를 잘 수행한 종은 그 대가로서 그들 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따라서 더 많은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청지기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예는 구약시대의 토지의 양도에 관한 규례와 도적질에 대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땅은 여호와께서 주셨으며, 이를 이방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며, 그 수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회년에는 원소유주에게 돌려지게 되었다 (레 25:8). 또한 8번째 계명인 도적질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부여하신 수탁권에 대한 침해로서 이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2. 인간과 일

우리는 우선 우리의 인간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인간은 위대한(great) 존재이다. 인간의 존엄성 및 위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타락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형상은 죄에 오염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형상

필자소개



조성표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 석사, 연세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공인회계사로서, 대우중공업 예산과장대리를 역임했다. 1979년 예수님을 영접하여, 대구의 수성 성서침례교회 청년부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현재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파괴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계획에 기초한 윤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초에 어떠한 것을 의도하고 계신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1) 일은 인간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일은 창조섭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타락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으며(창2:3), 타락이전에도 충만하고, 다스리며(창1:28), 에덴 동산을 지키게(2:15) 하셨다. 그 이외에도 시편기자(104:21-23), 잠언기자(6:6), 네째 계명, 바울(살후3:6-13) 등도 열심히 일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2) 일은 의미가 있어야 하고 목적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수탁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계하여야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탐구하고, 이해하고, 통치하며,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적(creative)이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글자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출36:1).

그런데 타락의 결과 일에 변화가 오게 되었다. 일은 저주의 결과로서 수고가 되었다(창3:17-19). 그러나 이것은 죄의 결과이지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수단적인 일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을 하거나 시켜서는 안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이해하거나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일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3) 일은 사회적 활동이다.

인간이 함께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각자의 능력과 기술에 따라 일하여 그 결과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셨다. 함께 모여사는 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람은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재능은 자연질서에 대한 특별한 통치권으로서 이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고

용이란 함께 운영할 사업에 동료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노동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전체적인 인간(whole person)이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따라서 일과 인간을 분리할 수 없으며, 일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로 이 창조질서가 어그러지게 되었다. 인간들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갈등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일의 조직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이다(농사하는 자 가인과 양치는 자 아벨과의 경우와 같이).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일의 조직을 배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소득의 분배

소득이란 특정한 기준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정한 기준이란 무엇인가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1) 모든 사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눌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창조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적인 생존과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에 대한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먹이시고(창2:16) 입히셨으며(창3:21), 팡야시대에도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다. 또한 추수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말씀하고 계시며(레 19:9,10, 신2:19-22), 전당잡은 웃도 밤에는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출22:26).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인간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으며(마6:25-32), 바울도 디모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라고 격려하고 있다(딤후6:8).

(2)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도가 있다.

성서에서는 탐욕과 사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팡야시절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충분한 만나를 공급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일용할 것보다 많이 취하였는데, 이 여분의 만나는 썩어 냄새가 나게 되었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용할 것 이상 취하는 탐욕과 사치에 대하여 아모스 6장과 야고보서 5장 등에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열번째 계명과 신약에서도(마7:22, 엡5:3) 탐욕은 정죄되고 있는데, 탐욕은 자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욕심냄에서 비롯된다(딤후6:6-10).

- (3) 특정자원에 대한 개인적인 통치권은 그 자원을 모두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수탁자로서 그 앞에 책임이 있으며, 그로부터 나오는 효익을 사회에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구약에서도 십일조와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에 대한 구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오천명의 무리와 먹는 것에 관심을 보이시고 먹이셨다(요6:5).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관심이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기본욕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0장에서의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에서 보면,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고 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면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성서적인 기준은 그의 노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성서에서는 노력에 대한 공정한 대가의 의미와 함께 각자의 생존을 위한 사랑이 고려되는 것이다.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창조의 일부분에 대한 관리자로서 동역하도록 초대하고 계신다. 또한 이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사이지 우리의 권리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Ⅲ. 자본주의에 대한 비평

1. 자본주의의 기본적 특징

순수한 경제 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경제적 자유

각 개별기업이나 가계는 가격체제내에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가격시스템은 시장을 말하는데, 기업은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여 그로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기업의 목표는 가격과 원가의 차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 즉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가계도 마찬가지로 여러 직업과 여러 소비 중에서 그들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다.

(2) 경쟁

이는 자원할당의 문제로서 모든 자원(노동까지도) 가격체제내에서 그에게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가계나 기업에게 할당된다는 것을 말한다. 역으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들의 가격을 경쟁자에 비하여 낮게 제시하여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3) 소유권

사회내에서 자원의 분포가 공정하다는 전제하에 각 자원의 소유주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그 자원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사유재산권' 또는 소유권이라고 한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노동력이나 물질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천부적이거나 상속된 것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그 소유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4) 자유방임

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운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개념은 모든 경제적 거래는 자유로운 실체인 기업과 가계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의 조직 및 재화의 분배에 어떠한 역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본주의에 대한 비평

(1) 창조와 인간의 통치권

창조물에 대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여 이로부터 최대의 효익을 얻는 것은 선한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부터 자본주의 시스템이 부의 생산 및 분배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되어 왔으나 실제로 명확히 증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는 독과점, 외부경제, 공공재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체제에서는 파레토의 원리 - 다른 사람의 희생 없이 어느 누구도 수준이 향상될 수 없는 상태가 최적이라는 원리 - 에 따라 효율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자원의 극대생산만 고려할 뿐, 자원의 분배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아가는" 성서적인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이웃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이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그들의 원동력으로서 수용하고 이를 미덕으로 여기기까지 한다. 이러한 생각은 성서의 청지기 개념과 많이 상이한 것이다.

(2) 인간과 그의 일

인간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면, 어떠한 원인에서든 비자발적 실업은 악인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는 완전고용이 이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본질은 노동계약이다. 노동계약은 노동을 인간과 분리된 상품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비성서적이다. 즉 일을 통한 동역의 의미가 사라지고 각자 노동상품을 통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효율성 즉 수익성의 추구가 최우선의 목적이 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생산을 위하여 비인간적인 생산방법이 채용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 따라서 비인간적인 생산방법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채택되었을 때, 비자발적 실업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저항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3) 소득분배.

자본주의는 의식주의 최저수준을 확보하여 줄 방법이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동기는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다. 개인의 많

은 부의 축적과 기업의 성장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자본주의에서 재산과 능력의 분배를 공정하다고 보는 가정에 있다. 즉 자신의 능력에 따른 소득은 당연하다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사유재산과 능력을 상품으로 간주하고 이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성서적 원리에 따르면 자신의 부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서 자신은 청지기로서 단지 이를 관리하는 데에 충성을 다하며, 그 결과는 주인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은 부를 획득하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합목적적이고 의미있는 활동인 것이다.

IV. 맺는 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는 하나님의 창조계획을 만족시키는 데에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반발하여 나온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많은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자연의 소유권에 관하여도 사회주의에서는 인민 또는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모든 자원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성서와 배치된다. 또한 인간관에 있어서도 인간을 철저히 물질로 간주하는 유물론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창조원리에 정면으로 대립되며, 일의 조직에 있어서도 효율지상주의인 자본주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소득의 분배면에서 볼 때, 자본주의의 분배의 편중현상을 막기 위해 고안된 계획경제체제는 또다른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즉, 중앙정부의 소수인원이 방대한 자원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처리능력의 부족, 그리고 부정부의 개입 등으로 많은 비효율이 나타남으로서 인민 전체의 빈곤화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으로 보여진다. 자본주의 체제가 부의 생산에서는 우월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나 우리의 판단기준은 하나님의 창조기준에 두어야지 이와같이 몰량중심의 공리주의적 판단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우리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가 모두 하나님께 만족스럽지 못함은 인간의 죄성을 생각

하여 볼 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이상적인 경제체제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에 따른 탐욕이 개입된다면 이기적인 축재와 부정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도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대천덕(1989) "성경적 경제의 기초원리," 대구,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2. Goudzwaard, Bob(1979)
"Capitalism and Progress,"
Toronto, Canada, Wedge Publishing Foundation.
3. Griffiths, Brian(1984)
"The Creation of Wealth,"
Downers Grove, Illinois, IVP.
4. Hay, Donald A.(1975)
"A Christian Critique of Capitalism,"
United Kingdom, Grove Books,
5. Hay, Donald A.(1982)
"A Christian Critique of Socialism,"
United Kingdom, Grove Books.